

“스승과 부처는 하나”

구루요가 수행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자비명상법>은 달라이 라마가 열아홉 살에 쓴 구루요가 수행법인 <영적인 스승과 관세음 보살의 불가분성: 모든 성취의 근원>을 라마 튜텐 예세(1935~1984)가 해설한 책이다. 구루요가란 탠트라 수행에서 구루(스승)와 부처를 하나로 보는 수행법이다.

1부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수트라(Sutra)와 탠트라(Tantra)가 갖는 접근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2부 ‘달라이 라마에게 배우는 구루요가’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수행법을 한 문단씩 해설하고 있다. 3부 ‘자비명상 수행하기’에서는 자신이 스승 즉, 부처와 하나 되는 법이 무엇이며 진언은 어떻게 영속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4부 ‘수행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달라이 라마의 자비명상법 라마 예세 튜텐 해설 박운정 옮김 정신세계사 | 1만원

불교에서 찾은 인간 해방의 길



인도로 간 붓다 - 그의 삶과 가르침 암베드카르 지음 이상근 옮김 청미래 | 1만5천원

‘불가촉천민의 해방자’이자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로 불리는 빌라오 람지 암베드카르(1891~1956). 힌두교의 전통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의 최하층계급인 ‘불가촉천민(하리잔)’으로 태어나 장관직에까지 오르며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그는 죽기 두 달 전인 1956년 10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불가촉천민 수십만을 이끌고 불교로 개종했다. 인간의 평등권과 신분제 해방의 길을 불교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신은 단순한 ‘불교도’ 이길 원했음에도, 사람들은 이를 종래의 불교와 구별하여 신불교(新佛敎, 네오부디즘)라 일컫었다. 암베드카르가 부처님의 출가이유와 사성제(四聖敎)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영혼이나 윤회, 전생, 업 등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인도로 간 붓다>는 암베드카르가 개종을 감행하

며 일반인들을 위해 집필한 불교입문서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여실히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담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삶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집안의 14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포이(영국의 인도인 용병)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봄베이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인도로 돌아와 1942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불교에서 그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암베드카르가 체계화한 불교교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타개하는 본질적인 ‘해방의 해석학’이라 일컬어진다. 그는 힌두교가 가난한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현실을 개인의 ‘업’으로 돌리는 것과 달리, 다만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스러지는 인연의 연쇄고리만이 있을 뿐이며 이 인과의 고리를 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의 보편적 해방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심어 준 것이다. 또한 그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한 샛다르마(정법, 正法)라고 그는 정의한다.

‘니카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평전(評傳) 형식으로 정리한 이 책에서 암베드카르는 부처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서 참다운 삶과 수행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최하층 계급에서 장관직까지 오르며 소외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암베드카르가 쓴 불교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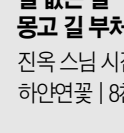
년 총독 정부의 노동 장관을 역임했으며, 같은 해 불가촉천민의 전국적인 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1946년에는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됐고, 인도의 네루 내각에서 법무장관에 오르는 등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되는 계급적 폭력과 학박에 시달려야 했다. 카스트제도를 인정하는 힌두교에서는 더 이상 사회변혁의 길을 찾을

몽골에서 만난 부처

길 위에서 완성되는 기행시는 때로 풍광이나 감흥의 묘사를 넘어 선성찰을 느끼게 해 준다.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의 기행시를 모은 시집 <길 없는 길 몽고 길 부처 길>은 말을 타고 초원을 건너고 ‘켈(유목민들의 거주용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도 ‘깨달음’의 끈을 놓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길은 털털거리/ 고행(苦行) 길이네.// 길은 멀기만 해/ 인내의 길이네.// 길은/ 없어/ 모두 길이네/ 몽고 길이네.”(‘몽고 길 1’ 전문)

“시를 쓴다는 것은 시간에 내몰리기 쉬운 일점과 마음에 선표를 찍는 일”이라는 진옥 스님은 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여수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역임했다.



길 없는 길 몽고 길 부처 길 진옥 스님 시집 해안연꽃 | 8천원

재밌는 일화에 담긴 숨은 지혜 찾기



우파니샤드, 낯설게 말하는 지혜 이재숙 지음 | 풀빛 | 9천원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책을 권하는 일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그 책이 어른들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철학 고전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각 독서 단체나 대학들이 선정하는 ‘추천도서’에는 <논어>나 <유토피아> <자본론> 같은 철학 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아닐 수 없다.

도서출판 풀빛이 펴내는 ‘청소년 철학창고’는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청소년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자처한다. 허우성(경희대) 윤찬원(인천대) 정영문(서울신학대) 허남진(서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50여 권의 고전을 선별했고,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해당 분야의 일선 교사들이 필자로 나섰다. 어렵고 딱딱한 기존의 고전 해설서를 벗어나 강의를 하듯 쉽게 풀어냈다.

‘청소년 철학창고’ 그 두 번째 책으로 ‘인도 철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가 나왔다. 책은 18종의 <우파니샤드> 중 일부를 뽑아 ‘나에게 소중한 사람’ ‘각각의 한계’ ‘요가의 진실’ 등 10가지 주제로 엮었다. 나찌때까가 열라대왕을 찾아가던 이야기나 땅 속의 악마 아수라와 하늘의 신들의 싸움 등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담고 있다. 재미있는 일화 속에 담긴 숨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편, 도서출판 풀빛은 ‘청소년 철학창고’ 시리즈로 <삼국유사>와 <금강삼매경론> <대학 중용>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형 기자

불교디자인 개척... 화필 인생 40년



한글을 오려서 누더기 집고 고현 글/그림 | 종이거울 | 1만5천원

일러스트레이터(회화)와 디자인 사이 에 있는 분야로 30여년 동안 ‘불교미술의 현대화, 불교 디자인의 개척화’라는 화두를 잡고 살아온 고현 교수(조선대 디자인학부)가 화필 인생 40년을 정리한 책을 펴냈다.

지은이의 그림과 불교에 얽힌 인연 이야기들이 책을 읽는 재미에 불교에 대한 지평까지 넓히게 해준다. 그중 지은이가 10년 전 경기도 화성의 모 사찰의 탱화 제작과 장엄불사 관제로 출입하면서 느낀 감회는 감동 그 자체다. 이 절에는 와병중인 주지 스님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 70세가 넘는 할머니 8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장장 8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소변 받아내며 병상을 지키는 봉사자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지은이는 ‘내가 내 부모한테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며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는다. ‘화필삼매(畫筆三昧)’를 통해 이들에게 장엄한 <법화경>의 세계를 시각적(視覺的)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다.

지은이는 “불교작업 30여 년에 이 번째를 힘들게 끌고 간 경험이었었다. 장마철에 연구실이 비가 새는 통에 그려놓은 절반의 작품을 다시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이 절에 살고 계신 스님들의 모습이 필력의 원천이 됐다”고 술회한다.

지은이는 아직도 ‘승(僧)과 속(俗)’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화필삼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승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남아있어서인지 이따금 산에 가서 한 철쭉은 살아야 새로운 기를 얻어서 내려오곤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현 교수가 붓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새로운 책

■ <불교만화이야기 12>(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불교만화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 열두 번째 권에서는 <백유경>에 나오는 일화를 만화로 꾸민 ‘김경림의 백유경 이야기’와 팔공산 은해사를 찾아서, 몸에 좋은 스트레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진 동화 ‘오세암’을 요약해 실었다.

■ <이젠 지혜경영이다>(손기원 지음, 지혜미디어, 1만2천원)=5년 후에는 지식사회가 아니라 지혜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가치,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덕목도 지혜다. 그래서 지식인에서 지혜인으로, 지식경영에서 지혜경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소장이 자기경영과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혜경영’을 제시한다. 개인과 기업 차원의 ‘10가지 변화 습관’을 알려준다.

■ <어린이병원에서 만난 작은 천사들>(미야모토 마사후미 지음, 황소연 옮김, 한울림, 8천5백원)=난치병과 싸우는 일본 어린이 환자들의 글과 그림을 엮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의 2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아이들이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의지가 책 곳곳에 배어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임보리행론', '몽서', '이강의사', etc.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Zen teachings and a website URL.

Large advertisement for '방외지사!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Outside the World! Live as you want to live once!). Includes a large headline, sub-headline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 뿐...', a list of 13 stories, and a book cover for '방외지사 1.2'.